

공식 방문 가이드 **2026**

밀라노 두오모

밀라노 · 시작가 26€

https://duomomilano.visit-tickets.com/ko/ · 패스트 트랙 티켓 & 공식 요금



기원 & 역사

500년의 대리석 야망

GOOGLE 4.8 ★★★★★ 202 342 후기

TIQETS 4.6 ★★★★★ 13 664 후기

밀라노 두오모는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500**년에 걸친 건축적 야망의 산물입니다. 1386년 장 갈레아초 비스콘티 공작이 밀라노를 이탈리아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착공을 명령하면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롬바르디아 전통의 벽돌 고딕 양식을 구상했으나, 곧 프랑스와 독일의 건축가들이 참여하며 국제 고딕 양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장인들과 외래 전문가들 간의 격렬한 경쟁과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탄생시켰습니다.

대성당의 재료로 선택된 것은 칸돌리아(Candoglia) 산에서 채굴된 희귀한 흰 대리석입니다. 각 블록에는 **'AUF'(Ad Usum Fabricae)**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공사용으로만 전용되도록 보장했으며, 이는 특정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대리석은 알프스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 밀라노의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5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왕조와 예술가들이 이 돌들을 다듬으며, 대성당은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권력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건설 과정은 중단 없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페스트,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는 여러 차례 지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32년이 되어서야 모든 세부 사항이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주 첨탑 위의 마돈니나**(Madonnina)** 동상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해 해체되었다가 전쟁 후 재설치되는 등 치열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 동상은 밀라노 시민들에게 정신적 지주이자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무게는 약 830kg에 달합니다.

두오모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세비야 대성당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3,400개 이상의 조각상이 장식되어 있어 '대리석의 숲'이라고도 불립니다. 각 조각상은 당시 최고의 조각가들이 제작한 것으로, 성경 이야기부터 신화, 밀라노의 역사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건축사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한 장소에 집념과 예술을 쌓아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경 험

광장에서 두오모를 처음 마주할 때, 방문자는 압도적인 규모와 섬세한 디테일의 대비에 숨이 막힙니다. 하얀 칸돌리아 대리석이 만들어내는 빛나는 파노라마는 마치 꿈속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고딕식 뾰족탑들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위엄을 자랑합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높은 천장과彩色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이 공간에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거대한 기둥과 복잡한 프레스코 화는 방문자를 과거의 시간여행으로 이끌며, 정적 속에 담긴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테라스로 올라가면 경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상승합니다. 좁은 복도와 가파른 계단을 지나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밀라노의 전경과 멀리 보이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3,400개의 조각상이 빽빽이 들어찬 지붕 위에서 걷는 느낌은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지만, 동시에 도시의 심장부를 조망하는 특권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일몰时分, 석양이 대리석에 금빛 반사를 일으킬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으며, 이 순간은 밀라노 여행의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됩니다.



방문 준비하기

실용 정보

주소

Piazza del Duomo · 지하철: Duomo(M1, M3, 메인 출구) 또는 Turati(M2, 도보 5분)

운영 시간

계절 및 학교 방학 기간에 따라 변동됩니다. 방문 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요금

연령에 따라 어린이 무료 (변경 사항을 확인). {promo}.

방문 소요 시간

테라스를 탐험하고 고딕풍 세부 사항을 감상하며 스트레스 없이 파노라마 뷰를 즐기기 위해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을 계획하세요.

사진 촬영

테라스와 교회 내에서는 자유로운 사진 촬영이 허용됩니다. 작품 보호를 위해 박물관 내에서는 플래시 사용 금지. 보조 배터리 권장.

대상 고객

모든 연령대 적합. 주의: 테라스에는 급격한 계단이 있어, 사전 엘리베이터 예약 없이 유모차를 사용하는 영유아 동반자는 이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LOCALISATION

Où se trouve 밀라노 두오모 ?



📍 Piazza del Duomo 14/A — 20122 밀라노

🌐 45°27.822′ N, 9°11.520′ E



조 직

층별 탐험 가이드

내부 본당 (Rez-de-chaussée)

거대한 5중 나브 구조와 화려한 프레스코 화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중앙 제단과 성유물, 그리고 바닥에 새겨진 밀라노의 지도를 감상하세요. 높은 천장으로 인한 음향 효과와彩色 유리창의 빛이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박물관 및 세례당 (Niveau 2)

대성당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와 설계도, 그리고 중요한 종교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당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례를 받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고대 기독교 예술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 (Terrasse)

지붕 위를 걷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3,400개의 조각상과 뾰족탑 사이를 지나며 밀라노 시내와 알프스 산맥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마돈니나 동상이 있는 주 첨탑 근처가 가장 인기 있는 포토 스팟이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접근성이 좋습니다.

접 근 성

♿ 장애인 접근 시설

내부는 휠체어 이용 가능하지만, 테라스는 특정 보조 없이 접근할 수 없는 계단이 있습니다.

👨‍👩‍👧 가족 동반

테라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가족 여행에 이상적이지만, 하강은 도보로 이루어집니다.

🎧 오디오 가이드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필수 명소

선 택

놓칠 수 없는 8가지 경이

01 주 첨탑 정상

마돈니나 (Madonnina)

밀라노의 상징인 금박으로 덮인 구리 동상입니다. **830kg**의 무게를 자랑하며 도시를 보호하는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이 동상의 모습은 밀라노 방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 💡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군이 금속 회수를 위해 해체했으나, 전쟁 후 빠르게 재설치되어 시민들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02 테라스 전체

칸돌리아 대리석 지붕

수천 개의 뾰족탑과 조각상이 빽빽이 들어찬 지붕은 '대리석의 숲'이라고 불립니다. 각 조각상은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고딕 양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 💡 각 대리석 블록에는 'AUF' 인장이 찍혀 있어 공사용으로만 전용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는 세금 면제 혜택과 연결되었습니다.

03 테라스 북쪽

알프스 산맥 전망

맑은 날에는 멀리 알프스 산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밀라노의 도시 경관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파노라마는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뷰입니다.

> 💡 대기 조건에 따라 가시성이 달라지므로, 방문 전 날씨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본당 중앙

중앙 제단

대성당의 영적 중심지인 제단은 화려한 장식과 성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분위기를 느끼며 묵념을 드리기 좋은 장소입니다.

> 💡 여기는 밀라노 대주교의 좌석이 위치하며, 중요한 종교 의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05 본당 창문

색채 유리창

빛을 통해 투영되는 화려한 색채는 내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은 교육적이며 미학적으로도 뛰어나습니다.

> 💡 유리창은 햇빛의 각도에 따라 색감이 변하여 하루 종일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06 박물관/세례당

성 아우구스티누스 세례 장소

현재 두오모 자리에 있던 이전 교회의 유적을 통해 고대 기독교 역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곳의 종교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 이곳은 고딕식 건물이 세워지기 전부터 밀라노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07 본당 내부

건축가의 묘비

두오모 건설에 기여한 주요 인물들의 묘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리며 건축사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 장 미뇨(Jean Mignot)와 같은 프랑스 건축가의 흔적이 남아 있어 국제적 협력을 보여줍니다.

08 테라스 복도

테라스의 미로

좁은 복도와 가파른 계단이 형성하는 미로 같은 구조는 탐험의 즐거움을 줍니다. 각 코너마다 새로운 조각상과 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유모차는 이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편안한 신발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팁

완벽한 방문을 위한 팁

TIMING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하여 군중을 피하고 짧은 대기 시간을 즐기세요.

BILLET

테라스, 박물관, 세례당을 포함하는 복합 티켓을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하여 메인 입구 줄을 건너뛰세요.

PARCOURS

먼저 내부 본당을 둘러보고, 이후 테라스로 올라가 일몰을 감상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PHOTO

마돈니나 사진을 찍을 때는 반대편 테라스에서 망원 렌즈를 사용하여 군중을 피하세요.

PAUSE

방문 후 갈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내의 파스티체리 코바에서 커피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세요.

ENF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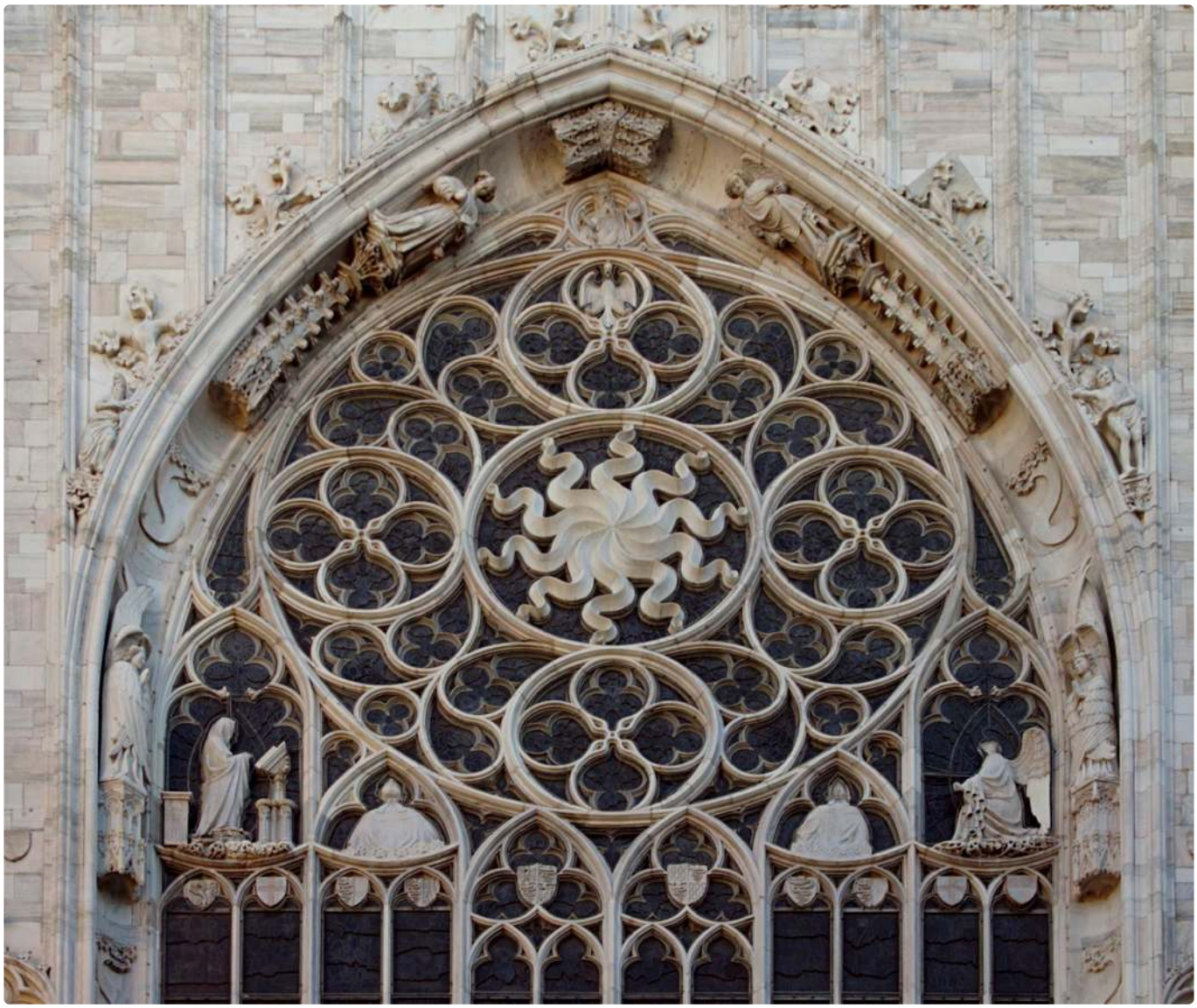
테라스는 계단이 가파르므로 유모차 동반자는 엘리베이터 예약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UDIOGUIDE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오디오가이드를 활용하여 건축사와 조각상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세요.

CONFORT

미끄럼 방지 밑창의 편안한 신발을 신고, 날씨에 따라 자켓을 준비하세요. 보조 배터리도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두오모(Duomo) 티켓을 미리 예약해야 하나요?

예, 특히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긴 대기 줄을 피하기 위해 예약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는 종종 포화 상태일 수 있는 테라스 시간대도 보장해 줍니다. 이 고딕 걸작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려면 공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세요.

두오모(Duomo) 패스트 트랙 티켓이 있나요?

내부는 종종 무료이지만, 테라스는 '대리석 하늘'의 독특하고 몰입감 있는 파노라마 경험을 제공합니다. 박물관과 세례당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방문을 위해 결합 티켓을 권장합니다. 맑은 날 알프스 산맥을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는 관광 경험의 주요 차별점입니다.

두오모(Duomo) 매표소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 판매점은 두오모 광장(Piazza del Duomo) 주변과 온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인플레이션된 가격의 티켓을 판매하는 비공식 재판매자는 절대 피하십시오. 투명하고 유효한 요금을 위해 공식 창구 또는 웹 플랫폼을 사용하세요.

예약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온라인 티켓은 조건부로 환불 가능하며, 종종 방문 24시간 또는 48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구매 시 티켓의 특정 약관을 확인하세요. 계획 변경 시 추가 비용 없이 날짜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오모(Duomo)와 테라스를 방문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 세부 사항과 파노라마 뷰를 완전히 즐기려면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을 계산하세요. 이 시간은 계단 오르기, 지붕 산책 및 사진 촬영 시간을 포함합니다. 빠른 방문으로는 3400개의 조각상이 가진 풍부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야릇한 사실 & 흥미로운 정보

'AUF' 인장의 비밀

칸돌리아 대리석 블록마다 찍힌 **'AUF'** 인장은 '제작소 용'을 의미하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사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국제적 건축가들의 갈등

프랑스와 독일 건축가들은 롬바르디아 장인들과의 적대감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오히려 독창적인 혼합 양식을 탄생시켰습니다.

500년의 공사 기간

1386년부터 1932년까지 **5**세기 반이 걸린 이 공사는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장기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세계 3위 대형 교회

두오모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세비야 대성당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그 규모는 밀라노의 위상을 상징합니다.

박물관 주변

두오모 광장은 밀라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변 명소로 이동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방문 후에는 바로 연결된 갈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거닐며 고급 쇼핑을 즐기거나, 역사적인 파스티체리 코바**(Pasticcerie Cova)**에서 커피 한 잔을 쉬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위치한 라 스칼라 극장 박물관도 음악 애호가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입니다. 또한, 산 로렌초 마조레 대성당이나 스포르차 성 정원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하루 일정 구성에 최적화된 위치입니다.



밀라노 두오모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예술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과거의 장인들이 남긴 열정과 현대 밀라노의 활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테라스 끝에서 마돈니나와 눈을 맞추는 그 순간, 당신은 밀라노의 영혼과 직접 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